대전자치경찰위원회, 셉테드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

이기운 기자 | 승인 2023.07.12 20:27

인공지능 및 사물인식기술 접목방안 등 대전형 셉테드 방향 제시



셉테드(CPTED)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 모습

[데일리스포츠한국 이기운 기자] 대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강영욱)는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12일 오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한국셉테드학회(회장 이동희)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 셉테드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용근 대전경찰청장, 설동호 교육감, 조원휘 대전시의회부의장,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셉테드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대표 등이 함께 했다.

특히 한남대학교 등 대학 경찰학과 학생, 범죄예방 분야 교수·연구원, 대전시청 . 대전경찰청 관계자,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등 셉테드 업무와 관련된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제1세션은 과학기술을 접목한 '청소년 비행 예방 AI CCTV'의 효과적 설치·운영 방안에 대한 한밭대학교 최동걸 교수의 발제와 치안정책연구소 권도희 박사, 동국대 융합보안학과 김연수 교수와 대전교통공사 이인영 팀장, 세종경찰청 홍성표 생활안전계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인공지능(AI)와 사물인식기술(IOT)를 접목한 대전형 과학치안 셉테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 이형복 박사의'대전형 셉테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발제와 치안정책연구소 강용길 박사,한남대 이도선 교수, 미국 서든일리노이대 조수정 교수, 충남도립대 곽영길 교수, 대전중부경찰서 CPO 박정민 경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대전셉테드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토론자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디자인 개선 등 대전형 셉테드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했다.

강영욱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치안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전형 셉테드(CPTED)를 구축하겠다. 대전시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셉테드 학회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 기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아파트, 건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기운 기자 lgu9878@dailysportshankook.com

저작권자 © 데일리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